

제1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토론후기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2012. 3. 29(목)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기관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1년도 11차에 걸쳐 사회적경제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콜로키움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공무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콜로키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2년 3월 29일(목) 15:00~ 17:3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5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박춘섭,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정동기(사무처장)
 - 원외
 - 김영관(충청남도청)외 2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이강익(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 사회적경제의 개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역사, 개념, 이론적 근거)
 - 협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특히, 충남
 - 협동조합의 지역화 방안

○ 토론

- 박 대 호 사무국장 (충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김 성 훈 정책위원 (한국의료생협)
- 참석자 전원

4. 행사일정

▶사회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00~1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15:05~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로키움 소개
15:1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제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강익)
16:0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 식
16:1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및 정리 - 박대호(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김성훈(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 참석자 전원

◆ 이강익 발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전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러한 경험은 협동조합의 발전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형 생태계조성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지역화와 협동조합

글로벌 자본주의 하의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기업의 육성을 바탕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지역블록화를 이루는 것이다.

풀뿌리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인데, 이유는 △ 지역사회의 필요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 소수 탈지역화된 투자자보다는 지역주민의 출자와 이용 그리고 민주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 조합원에 대한 배당 제한이나 자산동결(asset lock) 등을 통해 기업 자산의 탈지역화를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충남의 지역화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발전 문제이다. 특히 충남의 상황은 좋지 않다. 수도권 1인당 GRDP는 전국평균 대비 97.2% 수준이나 부의 역외유입으로 1인당 GRI는 117.6%이다. 반면 충청권의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114.9%이나 부의 역외유출로 86.2%이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부의 역외유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에 비해 ‘과소투자’와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조직구조가 영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 협동조합이 주변화되었던 핵심 이유가 내적 비효율성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생태계의 취약성에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는 정부, 네트워크, 지역시민사회이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망”이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한편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에서 기업 간 연계수준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 ‘강한 연계형’과 ‘약한 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응집형태에 따라 ‘중앙집중형’과 ‘분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강원도 사례

강원도에서는 2007년 이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풀뿌리기업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자원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주도형’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내에는 7개의 업종(간)네트워크와 5개의 지역네트워크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풀뿌리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 토론 요약

발제자 이강익씨의 발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참석자로부터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김성훈(지정토론자, 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올 12월1일 기본법 시행이후, 천개, 이천개 얼마나 많은 조합이 생기고, 그 중 3년 정도 지나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살아남은 조합들이 기존의 영리기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또한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

현재의 협동조합이 처해져있는 상황은 좋지 않다. 한미FTA체결로 중소기업이 활동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협동조합의 1인1표제가 만능이 아니며,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이용고배당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운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의 왜곡된 욕망들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나 협동조합의 규모화 역시도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이슈라 생각한다.

• 박대호(지정토론자,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후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과연 그러할까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자활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활동을 해왔으나,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한계를 경험하고, 개별 사회적기업인 ‘흙살림’ 이에서 1여 년간 활동을 했다. 흙살림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몇 가지 성공도 하였다.

성공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은 업종별(간) 네트워크 구축보다 우선된다.

흙살림에서의 경험을 충북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실행해보고자 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과 로컬푸드, 소비자, 생산자등이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운동단체, 사회적기업, 지자체, 부녀회가 지역의 의제를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 이원호(금강품앗이생협 준비위원)

현재 금강품앗이생협을 준비 중에 있다. 사회적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어렵다. 수많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으나, 판매할 만한 제품이 없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생태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현재의 국가주도, 국가지원에서는 생태계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살림과 같은 생협이 생

존력이 뛰어난 이유는, 스스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 **노병갑(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자활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처음의 이상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같이 변질된 점이 많다. 책임과 의무의 불분명한 점이 있다. 협동조합 역시 금후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박상우(홍동 마을활력소 사무처장)**

홍동의 지역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역시 홍동에 있어서 지역교육기관의 역할은 대단하다. 그러나, 홍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인가라고 한다면 확신을 갖기 힘들다. 홍동내의 네트워크는 느슨한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속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것인가의 의문이 생긴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다시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 **이강욱(발제자,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이번 콜로키엄은 좋은 시도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생태계조성은 저의 발표문 11페이지의 3가지 유형을 참고하라. 특히 정부주도형의 생태계조성의 경우는 인건비지원이 많지 않은 형태가 좋으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의 경우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

- **김성훈(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 컨설팅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이다. 산업별 전문컨설팅을 하기에는 자원도 능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의 경험은 좋은 컨설팅 인력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종업체의 네트워크는 업종 간 협동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좋은 기재라고 생각된다.

◆ 시사점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조직체이지만,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 즉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간) 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외적조건인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금후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기대가 되나, 또한 막연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발제자와 토론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생태계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